

제 2편 온양온천 생활문화의 뿌리

온양 아산의 마을사 제3집은 속간사에서 보았듯이 주로 구온양시의 중요사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이는 제1~2집에서 다룬 구아산군 관내 읍면의 사료들은 아직도 훈훈한 인정이 흐르고 있는 자연부락 마을 단위의 전통 생활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현황, 자연경관, 마을 변천과정, 입향, 지명, 전설, 전통놀이, 인물, 종교, 산업현황, 마을 특성 등 1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제3집 조사 대상인 구온양시 관내의 자료는 도시형태로 된 온양 관내 상황으로 인하여 제1~2집에서 다룬 항목 대로의 조사는 불가능하여 부득이 기초적인 현황자료들을 수록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구온양시가 간직하고 있는 원래의 형태를 가급적 기술하되 여의치 않은 항목들은 자료 조사에서 제외하고 그대신 구온양시와 관련된 고문헌, 근대사 자료등을 부록형태로 수록하였다. 다음에 소개되는 자료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온양의 생활문화 뿌리로서 온양의 현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누어서 수록하였다.



[1] 건축물

1) 2층집의 시초

우리고장에 2층집이 제일 먼저 생긴 것은 1910년경 지금의 온양관광호텔 건물(당시에는 경남철도 주식회사의 목조 2층건물이 그 시초가 되겠다.

2) 3층집의 시초

2층집과 같이 현 온양관광호텔(당시의 신정관)에서 지어진 것이 그 시초이다.

3) 4층집의 시초

1961년 옛 대한통운 입구 한남체인건물을 김평묵에 의하여 194평 규모로 건축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4) 5층집의 시초

1065년도에 지금의 현대의원 자리에 문화여관을 문화호텔로 개축 하면서 정숙인이 호텔용으로 지은 것이다.

[2] 귀금속상

1) 시계포의 시초

우리고장에 시계포가 처음 탄생되어 시계 수리상을 시작한 것은 1931년경 현재의 우리은행 자리에서 시계 수리상을 개시한 이기봉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 거의 같은 연대에 현재 온양 시내 신천탕앞 유락반점 자리에서 김철구가 그후엔 온양시내 용문장여관 자리 앞에서 시계 수리상을 시작한 김원식으로 나타났다.

2) 금은방

온양에서 금은방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온양시 온천동 녹십자 약국 앞에서 금은방을 차린 유병순이 본격적인 귀금속을 사고 팔며 귀금속의 세공업을 시작한 것으로 향토자료 조사에서 나타났다.

[3] 건축자재상

1) 철공소의 뿌리

참고로 우리 고장에서 농기구를 비롯한 간단한 주방용 기구등을 제조하는 철공소를 시작한 것은 1930년경, 현 우리은행 지점 뒤편에서 최모씨라는 사람에 의하여 그 업이 시작된 것이 시초가 되겠다.

2) 토건업의 뿌리

참고로 우리고장에서 토건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1925년대 현 아리랑다방 옆자리에서 일본인(성명 : 中凡玉 眞舌)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그 이후로는 목영국이 설립한 고광건설과 김덕성에 의하여 설립된 태양토건등이 해방후의 우리고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했던 토건업이다.

3) 건축 자재 판매업 분리

1925년경 현 중앙약국 자리에서 일본인(성명 : 古田)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그 시초이며 그로부터 얼마 뒤 현 조흥은행 자리 바로 옆에다 한국인 심원식이 동창목재라는 상호를 가지고 개업한 바 있다.

4) 목공소의 뿌리

우리 고장의 목공소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1927년경 온천동 시장통에서 손희석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시초가 되며 현 롯데장 여관 옆자리에서 장정환이가 목공소를 개설한 바 있다.

5) 제재소의 뿌리

온양에서 제재소가 제일 먼저 생긴 곳은 1925년경 현재 온양시내 중앙기계 공업사 거리에서 일본인(성명 : 미상)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 그 시초가 된다.

6) 페인트집의 뿌리

참고로 우리 고장에서 건축 자재와 기타 용도로 많이 쓰이는 페인트업을 시작한 것은 1926년 현재 아리랑 다방 옆자리에서 일본인(성명 : 中凡玉)이 토건업 건축자재 상점을 경영하면서 페인트를 판매한 것이 처음이다.

7) 철물점의 시초

다음에 철물점의 시초를 살펴보면 일본인 고전에 의해서 현재의 농협지부 옆자리에서 문을 연 철물점과 현재의 아리랑다방 옆자리에서 문을 연 일본인 상점이 되겠고 이어서 현재 시민로 입구에 자리한 표공과 공산이 개업한 가나다철물점과 현재의 크라운제과점자리에서 개업한

이명주가 경영하던 철물점들이 우리고장 철물점의 뿌리들이다.

[4] 환경업소

1) 음식점

역시 신정관 호텔(현 온양관광호텔)의 개설 연대를 전후하여 우리 온양에 음식점이 생겼는바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1921년 문성철이 개업한 문성철 음식점, 현재의 중앙감리교회 맞은편과 1923년경 현 구세슈퍼 자리에서 최장원에 의하여 개설된 음식점이 그 시초이다.

2) 요리집

1930년경 일본인에 의하여 개화(開花)라는 요리집을 중앙감리교회 자리에서 개업한 것과 같은 연대를 전후하여 우체국 후면에 한국인 신영균이 개업한 명월관이 있고, 역시 같은 연대에 온천리 양진빌딩 근처의 태양관이 조사 되었으며 현 웨스턴 관광호텔 자리에 일본인이 개업한 포월(胞月)등으로 나와 있다.

3) 식육점

1928년경 이순억에 의하여 현 온양 시내 현대의원 후문 앞에서 온천 식육점이란 상호로 개업을 하였으며 바로 뒤이어 전 고려의원 자리에서 송봉용이가 식육점을 개업하였다.

4) 여관이 제일 먼저 생긴 곳

우리고장에서 여관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연대가 다 각기 달라서 이를 결론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여관의 상호와 설립연대 그리고 설립자의 성명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여관상호와 경영주만은 조사대상에 응해주신 13명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대성여관 경영주 윤성백 설립연대 1928년 현재 온양 시내에 위치로는 현 신천탕 근처이고 광성여관 경영주 한광호 설립연대 1920년대 현재 온양 시내에 위치로는 현 삼성전자 대리점 근처로 나타나 있다.

5) 이발관이 제일 먼저 생긴 곳

이발관이 우리고장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곳은 아래와 같이 조사에서 나타났다.

경남이발관 경영주 이기철 설립 연대 1923년 현재 온양 시내에 위치로는 성심 약국자리이며 그후 현재 문화여관자리에서 손정숙이 이발관 문을 열었고 신천탕 근처에서 이복영이 조일이 발관을 개업했으며 그후 박상천에 의해서 합동이발관을 개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미장원이 제일 먼저 생긴 곳

우리고장에서 미장원이 제일 먼저 생긴 것은 뭐니뭐니 해도 1920년대 현 온양관광호텔부설

로 개업한 신정관구내 미장원이 가장 먼저 생긴 미장원이고 이어서 박모의 부인이 개업한 미장원이 두 번째 미장원이 되겠다.

7) 다방이 제일 먼저 생긴 곳

거리의 응접실이니 또는 음악의 전당이니 하는 찻집 다방이 우리고장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이것 또한 1920년대 신정관이 문을 열면서 구내 다방으로 개업한 것이 우리고장에서 제일 먼저 찻집으로서 개업한 뿌리가 되겠으며 그 이후로 온양 시내에서 다방으로의 시설을 갖추고 개업한 것으로는 현재 용문탕 건너편에 위치한 삼성전자대리점 점포자리에서 오춘근이 1930년대에 다방문을 연 것이 두 번째 다방 개업의 순서가 되겠고 이어서 현재 온천 1동 성모네아동복 가게자리에서 동방다방이란 옥호로 진창신이 문을 연 1962년대가 다음이고 이어서 제일 관광호텔앞 구 남남양복점 자리에서 이삼용이 문을 연 새마을다방과 김평육이 문을 연 아담다방이 우리고장 다방의 뿌리가 되겠다.

8) 대중목욕탕의 시작

온양은 예로부터 천혜의 온천수로 인하여 크게 각광받던 온천장으로 이름난 고장이다. 이와 같이 온천수의 용출로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온천수를 이용한 질병치료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온천수개발에 힘써왔다. 그러면 온양온천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공동목욕탕이 언제쯤 자리잡았는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온양온천에 대중목욕탕이 생긴 것은 1905년경에 하학수에 의하여 현재의 아산신용금고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규모는 초가 40평 정도의 반지하 토관으로 이루어진 시설이 그시초가 된다. 그후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공동탕을 갖추게 된 것은 1920년경으로 당시 경남 철도주식회사에서 하학수가 경영하던 시설을 매입하여 신축한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대중목욕탕이 구실을 한 시초가 된다.

[5] 운수사업연관

1) 교통수단의 뿌리

참고로 우리 온양시에 자가용 자동차가 제일 먼저 운행되었던 내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바 자가용차를 운행한 시기는 1926년이며 일본인 추본에 의하여 포트 26년식 차종을 현 온천 1동 사무소앞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소유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인으로는 류석주가 소유한 포트 29년식으로 1931년에 소유 운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2) 자전거포

1924년 현 한남체인 자리에서 김봉룡에 의하여 차려진 것이 자전거포의 시초이다.

3) 자동차 정비공장

1948년 이규만에 의하여 개설된 자동차 정비공장은 온양시 방축동에서 개업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4) 인력거

참고로 지금은 그 형태를 볼 수 없는 그러나 당시는 요긴한 고급 교통수단이었던 인력거를 온양에서 처음으로 소지 하였던 사람은 1924년경 하학수이며 그는 이 인력거를 그의 아들 하청일의 온양 공립보통학교 통학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5) 오토바이의 뿌리

참고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오토바이지만 1920년대에는 지금의 헬리콥터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것과 같이 좀처럼 갖기 힘든 오토바이를 맨 먼저 소유 운행한 시초를 더듬어 보니 1920년대에 당시 자전거포를 경영하던 김봉룡이 그 첫 번째 사람이고, 이어서 최장운이 소유하였고, 음봉면 신희리에 거주하는 이승환이 각각 소유하였다.

6) 화물자동차부의 뿌리

우리고장에서 화물자동차부가 시작된 시초를 살펴보면 1925년경 현재 산다여관 자리에서 경남 자동차부로 시작된 기록이 있는바 그후 1935년경 현 온양메디칼 자리에서 남선회물이란 회사로 발족된 것이 그 시초인데 당시 K.T.C의 고유 명칭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해방직후 까지도 K.T.C하면 화물자동차부, 화물자동차 하면 K.T.C를 연상하고 이 회사에서는 각종 운동 경기에도 K.T.C라는 마크를 달고, 자주 출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한 바 있다.

7) 버스 영업소의 뿌리

우리고장에서 버스 영업소가 개설되기로는 1925년경 현 조흥은행 자리에서 류기영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 그 시초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의료업소

1) 침술원의 뿌리

옛날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한약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았을 뿐 아니라 특히 침술에 의한 병 치료를 많이 하였다. 오늘날에도 한방 의학의 일부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침술은 독특한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고장에 침술원이 처음으로 생긴 곳은 현 온천슈퍼마켓 자리에서 1930년경 임석제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 그 시초이며 같은 연대에 송은영, 성문기등이 침술의로 행위를 한 바 있다.

2) 산파의 시초

지금 들으면 생소한것 같은 산파라 함은 산모가 어린아이를 분만하는데 있어 산모나 신생아를 모두 건강하게 하여 태아를 분만케 하는 일을 맡아하는 일로서 지금은 대개의 경우 신생아를 산모가 분만할때에는 산부인과 병원을 찾지만 당시에는 산파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문적으로 어린아이 분만을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곳이 있었다. 얼마후에는 조산원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주로 이 일은 여자가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것이 상례이고 산모가 산기

가 있으면 산파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을 받은 산파는 급히 산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출산을 돕게 된다. 우리고장에서 산파라는 간판을 걸고 이 일을 맨 먼저 시작한 것은 1920년경이고 온주동 1구 온양 읍내리 김왕기 집자리에서 윤성록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산파의 시초가 되었다.

다음은 병원의 뿌리, 치과병원의 뿌리, 양약방의 뿌리, 한약방의 뿌리등 4개 의료사업에 대한 자료를 일괄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 의료시설(병원, 치과, 의원)

온양의 의료기관 등장에 대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현대적 의료기관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한약에 의존하는 방편으로 병을 치료하였다고 보겠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미미한 내용의 신병치료 방법에 의존하거나 또는 신불에 대한 기도와 무당의 굿이나 점장이의 점술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의존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의하면 온양에 현대적 의료기관인 병원이 개설하기 이전인 1925년대에 현재 온양시 온천동에 소재하는 ‘용문장’ 입구 공지에 ‘심언철’이 개설한 한약방은 주민들의 신병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이용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 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온양시 온천동 ‘대한통운’ 부지와 ‘덕진빌딩’소재의 근처에서 ‘이달영’이 개업한 현대의료원인 병원이 개설된 것이 온양에 첫 탄생된 의원이 되겠다. 그후 ‘이달영’이 개설했던 경남의원은 일본인이 인수하여 ‘공의’시설로서 문을 열고 의료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나타난다. 이어서 1925년경 온양시 온천동 소재 ‘삼보천’자리에 ‘양우식’이 개설한 ‘영천’의원과 그로부터 몇 년후인 1928년경 온양시 온천동 소재 ‘금강여관’자리에서 ‘석제경’에 의해서 개설된 ‘공제병원’등이 온양에 현대의료 기관인 병의원으로서의 초창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후 다른지방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병의원이 온양에서 활발한 의료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온양은 천혜의 온천수의 영향으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의료 활동이 활발 하였는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27년 현재의 온양관광호텔안에 있었던 ‘온양관’이란 여관을 경영주 ‘온양온천 주식회사’ ‘하학수’로부터 경남철도 주식회사가 인수하여 이를 개수 일본군 용산 육군병원에 기증하여 온양분원으로 발족하여 일본군들이 요양소로 개설하였었다.

이 요양소에는 1933년경 많은 일본상이 군인들이 수용되어 의료 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일본 상이군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옛 온양시 청사와 인접한 무궁화아파트 소재에 분원을 설치하여 당시 수용되어 있었던 일본 상이군인들의 수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군인들중 상이군인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4-500명에 달하였으며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일본이 항복하게 되어 무장해제되고 일본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본 육군용산부대(일본군 23분대)’가 귀로에 이곳 온양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통로상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온양으로 부대가 이동하여 한때 주둔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군의 패전에 울분을 토하는 과격한 일본 군인들이 온양시내에 나와 난동을 부리며 선량한 한국인 시민들을 괴롭혀 한때는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후 1953년 6월 20일에 한국군의 제109육군병원이 온양시 모종동 아파트단지 일대와 ‘신기공업사, 온양농업기반공사지사’ 소재지등 일대의 광활한 지역에 콘센트 가건물로 된 병영을 활용하여 발족하였는데 이 병원의 콘서트 건물은 8·15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이 역시 천혜의 온천수를 따라 온양에 주둔하게 되면서 세워진 건물이다.

그리고 1·4후퇴 당시 온천동소재 ‘탕정관(현재 양진빌딩)’건물에 국립요양소가 이전해 와서 의료활동을 하였으며 한편 치과의원의 시초를 살펴보면 온천동소재 ‘온양인쇄소’ 근처에 일본인 좌백문대부가 1926년경 개설한 ‘좌백치술원’이 그 시초가 되겠다.

◆ 양약방, 한약방

우리고장에 의약업종이 언제부터 개설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의료업과 같이 상고할 길이 없다. 의료사에서든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고장에 의약업종이 같은 연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며 주로 한약종상이 약사와 의료에 관한 1차적 치료 행위를 담당하였으리라 보아진다.

그런데 조사내용에서 밝혀진 바로는 1915년대에 온천동 소재 현재의 용문탕 자리에서 (심언철) ‘수성당한약방’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질병치료와 매약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보다 조금 뒤늦은 시기에 역시 온천동에서 ‘최순’이 한약방을 개설하였으며 온천동에서 임성재가 ‘임성재한약방’을 차리고 치료와 매약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고장에 양약방을 제일 먼저 개설한 것은 일본인으로서 1925년에 온천동 현재의 ‘온양인쇄소’ 옆자리에 ‘경남약포’를 차리고 의약품, 자양식품, 공업약품, 화장품류를 매매하게 됨으로서 현대 의약업의 첫걸음을 내 디디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7] 의류관계

1) 양복점의 뿌리

오늘날 우리의 의복 문화는 거의 모두가 양복에 의존하고 있지만 1920년대만 해도 백의민족의 민족혼을 항상 간직해온 당시 사람들로서는 양복 문화에 그리 쉽게 동화 되지를 아니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도 유행의 첨단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멋에 도취된 일부 개화파들은 양복을 입고 멋을 내기도 하였다. 우리고장의 양복점이 제일 먼저 생긴 뿌리를 더듬어 보니 1930년경 현 온천동 성심약국 자리에서 경남 양복점이란 이름으로 이기철이 시작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2) 포목점의 뿌리

우리고장에서 포목점을 제일 먼저 개업한 뿌리를 살펴 보았더니 1924년경 현 신천탕 자리에서 조봉환이란 사람에 의하여 개업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는데 동년대에 그 이웃에서 이한규에 의하여 대성상회라는 상호로 포목점을 경영하였다는 자료도 나왔다.

3) 세탁소의 시초

온양지방에서 세탁을 주업으로 하는 세탁소가 생긴 것은 1930년경 전 프린스여관 옆자리에서 이름이 파악되지 않은 일본인이 빨래감을 맡아서 빨아 다려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세탁소가 문을 연 것이 우리 고장에서의 세탁소 시초가 되었다.

[8] 신발류

1) 고무신 가게의 시초

우리 고장에 고무신 가게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은 현 온양 시내 유락반점 자리에서 1930년경 개성상회라는 이름으로 이해경이 경영한 것이 시초가 되며 동년 거의 같은 무렵 고려병원 맞은편에서 민영술이 개업을 하였고, 온양인쇄소 맞은편에서 같은 무렵 심의창이 고무신 가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양화점의 뿌리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양화점, 망치질하고 정교하게 한올한올 꼬매어 나가는 수제화 전문점, 수용자의 발크기를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 가죽을 재단하여 “꼴”에다 씌워서 부착력이 강한 폴로 붙여 이를 “쇠틀”에 끼고 수없이 망치질을 하고 몇일을 걸려야 하는 공들인 구두는 좀처럼 아무나 신을 수 없는 값비싼 신발이었다. 지금은 기성화가 판을 치고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아직도 수제화는 그 나름대로의 인기가 있어서 예술성과 견고함, 미려함, 편안함, 산뜻함 등이 어우러져 대단한 인기품종이었다. 이와 같은 구두를 전문으로한 양화점의 뿌리를 살펴 보면 현재의 신천탕 자리 근방에서 1930년경에 현대 양화점이란 이름으로 김복동이 문을 연 것이 그 뿌리가 되겠다.

[9] 식품류

1) 쌀 가게의 시초

우리 고장에서 쌀 가게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은 1920년경 전 백호양복점 자리에서 손석원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 그 시초이다.

2) 양조장

유기원이 1925년경 온양 양조장이라는 이름으로 현 아카데미예식장 자리에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해산물 판매업소

현 신천탕 자리에서 해동 해물점으로 지용운에 의하여 개설, 온양 시민들의 식탁에 해산물을 제공하였다.

4) 물장사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수도시설 등이 없고, 음료수를 사서 먹는 경향들이 많았다. 온천리에 거주하는 당시의 최창근이가 1928년경 물장수를 시작 하였는데 당시로는 한 지게당

소정의 물 값을 받았었다.

[10] 제과류

1) 제과점

1926년 국천당이란 이름으로 일본인 국수(菊水)가 전 인의반점 자리에서 개업하였음.

2) 빙과류

1931년 일본인 길전(吉田)에 의하여 전 파리다방 현 조약국 자리에서 당시 아이스크림점을 개업한 것이 시초이다.

[11] 제조업

1) 가구점의 뿌리

참고로 우리고장에서 생활용 가재도구로서 필히 각 가정마다 필요로 하고 있는 가구점에 대한 뿌리를 더듬어 보았더니 1920년대 현 한일여관 자리에서 이종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2) 용기점의 시초

현재는 플라스틱과 금속류에 의한 식품 용기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주로 옹기 그릇을 이용하였다.

우리 고장에 이 옹기 그릇을 만드는 시설을 갖춘곳은 1919년경 방축동에서 이정화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3) 정미소의 뿌리

온천 시내 구 한전사무소 뒷편에서 1930년경 이범수에 의하여 태성 정미소라는 상호로 시작한 것이 시초로 조사되었다.

4) 도장포의 뿌리

우리 고장에서 인장업(도장포)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송찬호에 의하여 1930년 현 우체국 바로 옆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12] 오락

1) 당구장의 뿌리

우리고장에서 당구장이 제일 먼저 생긴것으로는 역시 현 온양관광호텔 자리인 신정관의 구내 당구장이 우리고장에서 제일 먼저 생긴 당구장이 되겠다. 이어서 현재의 대우갈비 자리에서 1927년에 日本人 하다마에 의해서 개업된 당구장이 다음의 순서가 되고 일본인 하다마는 당구장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개된 칠물점의 최초 개업자이기도 하며 그는 그밖에도 토건업과 건축업도 경영함으로서 당시 우리고장에서 활약하던 일본인으로서는 상당한 재력가였으며 그의 행세는 당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행방과 더불어 서구문명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우리나라 여러곳에 당구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우리고장에서 당구장을 경영하여 당시 많은 청장년들과 두터운 교분을 갖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이 당구장을 아지트로 하여 여러 가지 그룹활동들도 싹트고 하였는데 그것은 현재 용문여관 길 건너편의 삼성전자상 자리 2층에서 문을 연 이덕구가 경영하던 당구장이 되겠다.

2) 난장의 기원

우리 고장에 난장이 시작된 것은 1920년경 현 한남 슈퍼마켓 뒷편에 개설된 온양 가축 시장의 개설을 기념하는 축제 행사로 시작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그런데 이 난장은 글자 그대로 각종 오락, 도박, 농악, 씨름, 그네,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과 연예프로 등이 한데 어우러져 모든 주민들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즐기는 행사이다. 당시 처음 난장을 주도한 사람은 일본인(성명 : 出口)이 주취가 되고 소방대가 이난장 행사를 주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3] 서점

1) 도서 문화의 뿌리

참고로 온양 주민의 마음의 양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도서(서적포함)문화업체인 서점이 제일 먼저 탄생된 그 뿌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현 온양시내 중앙약국 자리에서 1930년경 일본인(성명 : 吉田)에 의하여 처음으로 서점이 생겼는데 그 상호는 요시다 상점(吉田상점)이다.

[14] 과수원

1) 과수원의 뿌리

과수원은 일본인(성명 : 일고)에 의하여 처음으로 경영 되었는바 해마다 사과와 배등을 많이 수확하였고 대정 9년에 우리고장에서 과수재배를 한 것이 그시초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는 온천선물로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었다.

[15] 대서소 (사법대서소 - 현재의 법무사무소)

1) 대서소의 뿌리

참고로 우리고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 사무를 대서하여 업으로 삼던 대서소의 시초를 조사한바 성낙춘이 현 보령 여인숙 자리에서 대서소를 차린 것이 시초이며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전 문화인쇄소 자리에서 이인영이 대서소를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가축시장

1) 가축시장의 뿌리

우리고장에 가축 시장이 시작 되기로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가축의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 오다가 우리 고장에 정식 가축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장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은 1920년경 현 한남 슈퍼마켓 뒤편에 일본인(성명 : 出口)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 그 시초가 되겠다.

[17] 담배

1) 연초상의 시초

담배는 일반 상인들이 제조판매 할 수 있는 전매품인바 참고로 우리지방에 연초 전매업을 담당했던 사업의 연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담배인삼공사 온양지점

■ 연 혁 ■

- 1921. 4. 조선연초전매령 실시에 따라 예산연초원매팔조합 온양영업소 설치
- 1927. 12. 1 조선연초원 매팔주식회사의 창립으로 예산지점 온양영업소로 개칭
- 1931. 7. 1 국가직영실시로 전주전매지국 예산출장소 온양판매소로 개칭
- 1946. 7. 1 전주지방전매국 예산지국 온양전매서로 개칭
- 1963. 12. 16 지방전매청의 폐지로 예산전매지청 온양전매서로 개칭
- 1987. 4. 1 한국 전매공사 온양지점으로 개칭
- 1994. 한국담배인삼공사 온양지점
- 2003. 현 재 KT&G 온양지점

※ 일제시대에는 담배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도 비일비재했다. 지금은 담배 파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듯하며 금연열풍이 노도와 같이 밀려와 옛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18] 신문 발간 및 보급활동

우리고장에서도 신문이 발행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8·15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흥분을 자아내 무엇이던 해보려는 의욕이 샘솟듯 하였다. 일제하에서 강렬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한을 풀고자 모두 분연히 일어섰다. 그 욕구중 가장 강렬했던 것이 교육이요, 그 다음이 언론

이었다. 그래서 신문사가 우후죽순처럼 창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우리 고장에서도 신문을 제작 발행한 사실이 있었다. 1949년 공보처장으로부터 신문 잡지등의 간행권을 얻어 창설한 온양시사 통신사가 조석간으로 신문을 발간하였다. 이 신문이 진가를 발휘한 것은 6·25동란 때 상당한 기간동안 신문이 전무한 형편으로 전선소식이나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이 모두 감감하던 때이다. 그래서 경제통신사의 양해를 얻어 매일 오전 오후 단파 수신기로 뉴스를 청취 전개하여 타이프로 쳐서 등사하였다. 이 신문의 발행인은 이정진이고, 편집인에 심승택이며, 총무에 소일영, 업무에 로영수가 맡아 관리하였다. 전란으로 외부소식에 어두웠던 시절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에게 외부 뉴스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조그마한 신문을 발행한 이들이지만 애향심의 발로에서 이룬 사업이니 깊이 기록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밖에도 온양신보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온양 타임즈”란 이름의 신문도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두 신문은 전기 온양시사 통신사에서 발행한 신문의 명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62년 3월 1일 당시의 아산군수 심춘택의 후원으로 온양문화원장 박노을이 아산군민보를 발간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발행 회수는 매주 1회 부수 1,410부, 처음에는 프린트 판으로 인쇄하였다. 내용은 군정소개, 지방소식, 공지사항, 물가시세 등 생활정보, 문화기사, 유관기관시책, 소개 등을 고루 실어 알찬 지방소식지로 꾸며졌다.

편집 진영으로는 발행인 아산군수 심춘택, 편집은 내무과장 전주기이며, 주필은 박노을로 되어 있었다. 그후 1968년에는 아산공보라 하며 매월 1회 1,000부씩 발행하였다. 1978년도 부터는 아산소식이라는 이름으로 군정홍보, 각종행사, 인사동정, 향토사, 물가동향, 유적지, 관광지 소개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문화원에서 월1회 발간하였다. 그후 온양소식도(1986년부터 발행) 발간되어 아산소식과 나누어져 각각 발행되었다. 이 소식의 특색은 온양, 아산의 출향 인사에게 일일이 발송하여 고향 소식을 전해주고 외지인으로 온양, 아산에 연고를 가졌던 인사에게까지 발송해 주어 훈훈한 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위 사실들은 신문활동으로서는 그 규모가 영세하다고 논하나 전시에 외부소식을 전해주는 행사라든가 출향 인사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사업은 어느 신문의 발간정신에 못지 않은 자랑스러운 애향운동이요, 문화활동이었다.

(1) 온양시의 신문보급 실태

1) 온양시의 신문보급 발전과정

옛날 조선왕조시대에 조보등이 있었다하나 우리고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다만 우리 고장 선비로서 조관이 되어 조정에 출사하여 조보를 받아본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구한말에 이르러 한성순보가 발행되었으나 우리 온양지역에는 정기 독자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성순보는 서울 중심의 신문이었으나 더러 몇 부씩 시골에 유입된 것에 불과하다. 관청에는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음을 첨기해 둔다. 민족 항쟁기에 이르러 많은 신문이 발행되었으나 처음에는 지방에 신문보급소가 없어 극소수의 시민이 2·3일 늦은 신문을 우편으로 구독하였다. 온양에 처음 신문지국이 설치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가 일본어 신문으로 경남약국을 경영하던 일본인이 지국을 경영하였다.

우리 민족신문으로 조선일보 지국을 홍성복이 경영하였으니 온양에서 신문지국으로서는 효시라고 할 수 있다.

홍성복이 개설한 후 정진구가 인수하여 보급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아일보는 이인영이 처음 보급을 시작하여 상당수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다 한다. 그러나 동아일보 보급에는 많은 예로가 뒤따랐다. 일본인의 눈으로는 불온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주목의 대상이 됨으로 구독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한 당시는 문맹률이 높아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한편 경제능력이 없어 신문구독은 특수층에 국한되었다. 그 당시 신문을 볼 수 있는 가정이면 중류이상 가정에 속하는 것이다. 8·15광복이 되자 폐간되었던 신문들이 속속 속간을 하자 우리고장에서도 신문지국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 농악

1) 농악 단체의 기원

우리나라 농민과 서민 대중의 애환을 가락으로 표출, 각종 농악 기구를 이용, 한 바탕 흥겹게 판을 벌이는 농악은 지금 까지도 우리의 전통 문화로 그 자리를 굳혀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농악이 우리의 고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20년경 온양시장(溫陽市場)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정회복에 의하여 조직 시연한 것이 농악단체의 시초가 되겠다. 물론 그 이전에는 각 부락 단위로 산발적인 농악활동을 벌였으나 그 시초를 더듬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 온양의 농악단체 발전을 위하여 힘 기울인 분으로는 고추 방앗간을 하던 심의창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분은 특히 온천리 5, 6, 9구 부락의 농악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분이다.

[20] 체 육

※제4편 1980년대 옛 온양의 모습…… 【4】의 7. 체육란에 상세히 수록하였음.

[21] 연 예

(1) 연예활동

사람이 이 땅위에 발붙이면서 문학(연예)은 그 싹이 돋기 시작한다고 가정하여 관 한다면 사람의 소리는 문학(연예)의 근원이 되었고 말이 있음으로써 형용이 생기게되고 형용은 곧 표현 동기가 됨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은 곧 문학(연예)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고장에서 전문적 연예활동이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는 똑바로 살펴볼 길이 없으나 옛날 고대사회에서 여러 집단적인 행사나 제 또는 나쁜 신을 막기 위한 곳을 할때 노래와 춤이 어울려서 연예활동의 시초를 이루었고 이것이 개화되어 연예활동으로 된 것이라고 보면 우리 고장에서 연예활동의 시초도 그 시기부터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우리 고장에서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기록 한다면 아무래도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고 기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온양지방에 대중 연예활동의 전당이며 제공처의 역할을 해온 상설 극장으로 문을 처음으로 연 곳은 천낙관 이었다. 1926년 온양에서 처음으로 생긴 천낙관은 그 시설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한 상설극장을 찾아 볼수 없었다고 한다. 극장이라야 지붕과 사면의 벽이 모두가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설 극장과 비슷했지만 당시로서는 이 고장에 있어 유일 무이한 문화의 전당으로서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경남철도 (현재의 장항선) 사회의 부사장 아끼모도(추본)가 그 당시의 명소인 신정관(현재 온양 관광호텔)의 부대 시설로서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천낙관에서는 주로 요양소에 있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 공연장으로 쓰여졌고 가끔 영화나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무렵 이 극장에서 상영되던 무성영화에 관객들은 흥분되기가 일쑤였고 장화 흥련전등의 연극을 관람하면서 수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연극에 도취되는 등 실로 당시로서는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이 극장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장난기 많은 청소년들이 심술 꾀게 돌을 던지는 통에 연극이나 영화가 상영 내지 공연될 때면 온통 소란스런 소리가 나서 잠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상황들이었다. 그러나 이 천낙관이 생김으로써 이 고장의 대중문화를 전파하고 마음의 안식처로 기여한 영향은 컸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본인들의 차별이 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 하였던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책에서 나온 근성은 이 극장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도 열외는 아니었다. 이 극장의 운영권은 물론 모든 지휘 감독체계도 일본인들이 도맡아 하였다. 차별대우의 한가지는 실 예를 든다면 동 극장의 앞자리와 관람하기 좋은 자리들은 모두 일본인들의 전용 좌석으로 그들만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뒷좌석과 입석 등에 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지가 되도록 엄격하게 통제 하기도 했다.

이 극장에서 연극이나 영화가 공연케 되면 으레히 이 프로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내 일원을 악대가 돌아다니며 광고를 했다.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 상영이 없을 때에는 갖가지 문예활동도 심심치 않게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고인이 된 홍남표가 당시의 빅타 레코드에 취입까지 한 실록있는 노래 숨씨 때문에, 그리고 일본 동경 음악악교에서 전공한 바이올린 숨씨가 뛰어난 이유로 유석환들이 가끔 당시의 일본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한 공연에 초청되어 우리말 노래와 애한이 깃든 옛노래들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여 아낌없는 절찬의 박수를 독차지 하기도 했다. 특히 아리랑, 검사와 여선생 등의 영화와 연극이 공연되어 관객들의 심금을 뒤흔들었던 것도 이무렵이었는데 이토록 갖가지 화재거리가 열키고 설킨 이 천낙관이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 하루 아침에 폭삭 주저앉아 버리게 되자 그나마 굶주린 오락이나 공연의 충족을 이루어 왔던 주민들의 실망은 컸었다. 그러나 1년 남짓 후쯤 천안에도 상설극장이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온양에다 상당한 거액을 들여 비록 200여석 밖엔 안되었지만 목재 건조의 2층 건물로서 상설극장을 건립하게 되니 이것이 온양 지방에는 천낙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긴 극장이 된 것이다. 이 상설극장의 명칭은 온양극장이라고 붙여졌다. 이 때부터 다시 연예활동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충남 도내에는 대전을 빼고는 이러한 훌륭한 극장시설이 없었다. 이렇게 온양극장이 새로 등장하게 되자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영화와 기단 공연이 주기적으로 공연케 되었으며 청춘과, 호화선, OK악극단등 국내 일류급 흥행 단체들이 몰려 공연이 본격화되기 시작 하였는데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한국 극단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며 연극을 공연하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일들이 아닐수 없었다.

8.15광복과 더불어 온양극장의 운영 상황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 하였다. 8.15광복을 경축하는 갖가지 대중 집회가 이곳 온양극장에서 연일 계속 되다시피 하였는데 당시 온양지방의 유

일무이한 대중집회소로서 불비던 이곳 온양극장에서 좌익분자들이 재빨리 시민대회를 개최 하기도 하였고 이어서 우익 진영인 독립 축성회가 이곳 온양극장에서 결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흥행몰이 등장될 리가 없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어서 극장관람에 굶주린 당시의 주민들에게는 펍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무렵 당시 우익 진영단체인 독립 축성회의 청년에서 소인극그룹을 창립하였다. 이 소인극 그룹에서는 애국심과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연극을 시도하여 이주진, 허정, 엄석창, 강근식등 10여명이 모여 안중근의사, 김상옥열사 등의 애국심을 소재로한 소인극들을 공연하여 미흡한 내용과 연기지만 많은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었다.

강근식의 각본과 장식, 분장등으로 이루어진 소인극 안중근 의사 등이 공연될 때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너무 억눌려 살아왔던 터이겠지만,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소인극이 무대에서 공연되는 도중 관객들은 관람석에서 연극에 도취되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어서는 관객들이 있는가 하면 심한 관객은 무대 위로 뛰어올라 일본 경찰로 분장하고 연기하는 한국인 연기자의 먹살을 잡고 두들겨 패는 진풍경도 많았었다. 이 무렵 소인극의 인기도 대단했지만 노래 콩쿨대회도 소인극 못지 않은 대단한 인기를 차지하였다. 물론 일제 침략하에서 마음 놓고 우리의 노래를 불러보지 못한 한도 있었겠지만 노래 콩쿨대회가 열릴 때마다 입주의 여지없이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었다. 이러한 당시의 온양극장의 운영은 전에 일제하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의 손에 의해 자치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그저 알뜰한 봉사였었다. 그러다가 온양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자 주둔하는 미군들의 위안 공연을 위해 간간이 온양극장이 이들에게 빌려 지기도 했었다. 미군들은 당시의 온양극장 무대를 사용할 때마다 무대 바닥을 새로 깔고 또 조명시설도 특별하게 갖추어 놓고 공연을 하였다. 그 덕분에 온양 극장은 이 무렵 항상 깨끗한 시설을 유지 할 수가 있었다.

경영주가 없는 온양극장이 대중 집회소로 또는 흥행장으로 요긴하게 이용되어 오다가 6.25 동난을 맞이하게 되었다. 6.25동난으로 말미암아 이 온양 극장은 폭격에 잿더미가 되었다.

이리하여 천낙관 시설부터 온양극장이 있기까지 10여년 동안 열키고 화제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일대는 명물로서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후 9.28 수복과 더불어 차츰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극장 시설의 필요성이 차츰 커지기 시작 하였다. 이 무렵에 이동 흥행장 (당시 가설극장)이 등장하여 사방을 광목천으로 치고 노천에서 16mm영화를 상영하였고 당시의 충남차부 (현재 금강여관 신관자리)의 차고에서 툼툼이 영화를 상영한바 있었다. 이 당시의 시네마 온양이란 것이 생겨 (지금의 용화동방면 굴다리옆 24시 편의점 뒤 창고) 제법 본격적인 흥행장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후 동방회관의 건립으로 16mm영화상영과 당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국악단의 무대 공연이 이루어져 온 바가 있다.

[22] 기 타

1) 고 물 상

온양에서 고물상을 시작한 것은 1920년경 전 고려병원 자리에서 손석원이 시작한 것이 첫 번째 고물상이 되겠다. 손석원은 고물상을 경영 하면서 전당포도 겸업 하였던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2) 전당포의 뿌리

참고로 우리고장에서 물건을 저당하고 돈을 벌여쓰는 전당포의 시초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3년경 현 대원약국 자리에서 하청일이란 한국인이 “하전당포”란 이름으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잡화상의 뿌리

우리고장에서 잡화상을 제일 먼저 경영한 것은 현 금호장 여관자리에서 1928년경 일본인 요시다에 의하여 요시다 상점이란 이름으로 잡화상을 경영한 것이 그 시초 였다. 그리고 얼마 후 현 농협 바로 앞 삼산약국 자리에서 한국인 권응호가 역시 잡화상을 차려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후일 문화당 백화점이라고 하여 그 규모가 크게 번창하였었다.

4) 라디오 수리점포

온양에 처음으로 라디오 수리상을 차린 것은 1930년대 예텐 여인숙 자리에서 이원길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조사 자료에서 나타났다.